악의 유래와 소진증후군 그리고 대중사회

구연상(숙명여대)

1. 악의 유래

선악의 문제에 대해

㉠ 악의 유래

> **"선의 결여(缺如)":** 악은 좋음(선, 善)이 없는 것과 같거나 또는 좋음이 모자라는 것과 같다!

> **악**을 **'좋지 않음(선의 결여)'으로 설명하는 일**은 악의 문제를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"자유(自由)"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> **칸트:** 악이란 **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위와 관련**해서만 선고되어야지, 우리의 "책임 귀속"을 넘어서는 행위와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.[1]

㉡ 결과로서의 악

-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또는 너무 술이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, 이 **'술 취하미'**가 비록 칸트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았지만, 그 순간 악했다고 할 수 있다.

> 악: **'돌이킬 수 없는' 또는 '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' 몹쓸 짓**을 저질르는 행위

>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짓은, 그것이 누군가 스스로가 원해서 저지른 것도, 그리고 그 자신의 정신이 멀쩡했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일일지라도, 즉 그의 자유 문제와 상관없이 **악한 짓**이다.(천인공노할 **환경 파괴범, 끔찍한 살인마,** 범죄자로 길러진 아이들, 살인병기로 훈련된 소년들, 마약에 취해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중독자들)

---

[1] 강영안, 『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』, 소나무, 2002. 170 쪽 살핌.

⇒ 그들은 '악마의 화신'과도 같지만, 그들 또한 이미 악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이다. **악은 오늘날 유령과도 같**다.

㉢ **악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**

- **칸트의 전제에 대한 비판:** 사람에게는 **"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존경심"**과 **"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애"**가 나란히 공존한다. 이때 악인은 그가 어떤 '몹쓸 짓'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하기보다 그가 도덕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악한 셈이다. 악의 유래는 '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법칙을 존경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데' 놓인다.

- **'몹쓸 짓'은 곧 '도덕법칙 또는 천륜과 같은 것을 어기는 짓'**과 다를 바 없다.

- **악의 유래: '도덕법칙을 어기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것'에 놓여야** 한다.

- **욕망이나 이성(理性)은 그 자체로 악의 유래가 될 수 없다.**

- **악**은 **우리의 선택에 의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, 악으로부터 발생한다.** 악이 악을 부른다.

- 악은 자연 상태에서의 약육강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**문명 세계의 산물**인 셈이다.

-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**악의 홀씨(포자, 胞子)**가 독버섯처럼 이미 퍼져 있다.

- **우리는 모두 제 마음의 임자**이고,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쓰는 대로 길이 나게 마련이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성질이 들어있다면,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.

- **악**은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맑히고, 그로써 '저마다에게 보다 나은 것'을 살피고 찾으며, 그것으로써 **스스로를 갈고 닦아 나감으로써만 물리칠 수 있**다.

- **악은 사회적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이다.**

- **우리의 양심이 저마다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리기만 하는 한, 우리는 악할 수 없다.**

- **악**은 **자유의 결핍이나 이성의 결핍에서 비롯되기보다 양심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.**

- **양심은 피곤하다.** > 양심에게 과부하가 걸리도록 하는 것, 즉 양심을 혹사시키는 것이 바로 양심의 처리 능력을 압도하는 **'부당한 욕심'**입니다. **이것이 바로 악의 주범(主犯)**입니다.

- 부당한 욕심= **"악심(惡心)" = '모진 마음'**

-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악심을 맑히지 못한다면, 우리 자신도 악에 희생당할 수 있다. 우리 모두가 '큰 사람'을 이루어 갈 때만 악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.

2. 소진증후군과 거짓말

- 우리는 오늘날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?

> **'돈의 사슬'**

> **무한경쟁의 터널**

> 사람들은 '저만 잘 살겠다'는 태도로 **아등바등** 살아간다.

- 메디치 가: 돈으로 흥하고(가문, 베네치아, 예술), 돈으로 망한다(사형당함, 지옥).

- 노르웨이 폭탄테러에 대한 분석: 민족주의?

- 민족주의의 뿌리: 『노르웨이 민화집』속에 나타난 왕에 대한 환상

- **꿈을 잃는다는 것** >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마치 **마지막 스퍼트를 하듯 전력질주**를 하고 있다. **꿈을 잃은 사람들** > 어디에서나 불안증을 겪는다.

- 공동체성이 허물어진다는 것 > **한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으면**, 달리 말해, 약육강식의 구조가 되거나 동정심이 없어지거나 하면, **실패하는 개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게 되거나 무기력의 상태**에서 벗어나지 못한다.

> 마음으로는 더 빨리 뛰려고 하지만, 몸은 거의 제자리걸음만 하고, 결국 자꾸 뒤처지기만 하는 현상을 **"소진 증후군(症候群)"**이라 한다. "소진(消盡)"이라는 말은 다 닳아버린 배터리(battery) 신세,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텅 빈 상태를 말한다.

- 경쟁체제에 길들어지는 사람들

> **경쟁을 찬양하는 사람들**

> 다수의 탈락자를 양산해 낸다는 점에서 소수를 위한 행복과 다수의 불행을 제조해 내는 '**절름발이 톱니바퀴**'

> 실패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: **"코끼리 쇠사슬 이야기"** >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꿈을 향해 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**동일한 꿈과 목표를 향해 달음질치도록 만드는 체제** >

실패에 길들여진 사람 > 불행 > **허무** > 우울.

- 악한 사회 제도는 모든 좋음을 파괴한다.

제도적 악은 "공권력"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물리치기 어려운 법이다. 심지어 제도적 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.

이러한 악 가운데 하나로 **"정치인의 거짓말"**이 꼽힌다. 정치 영역에서 "**거짓말의 정치적 필요성**" > 그 거짓말이 공익을 증대시키는 경우. **플라톤,** 『국가(폴리테이아, politeia)』에서 제안했던 **'훌륭한 거짓말'**

플라톤이 지어낸 훌륭한 거짓말 > 사람의 탄생 자체를 차별화, 그것을 사회적 신분 질서의 정당성 원리로 믿게끔 함, 결국 사람들 사이의 사회 질서를 올바로 유지하게 해 준다는 공익을 위한 것

-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?

정치의 목적이 과연 **"정치가에 의한 공익의 증대"**에 있다는 주장은 정치가 **"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구조"**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. 지배자의 **통치**는 지배와 헤게모니를 통해 이루어진다.

- 지배의 참다운 뜻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

"지배(支配)"의 뜻: "간지(干支)를 잘 배당(配當)한다." > "지배"는 육십갑자(六十甲子)를 잘 헤아릴 줄 아는 것 > 하늘땅의 변화와 농사짓는 법 그리고 세상의 온갖 지식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는 것 > "지배"는 본래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, 점을 치는 일을 의미 > 점치는 목적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잘 알고, 거기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

"**정치(政治)**"**는 "바루게 다스림">** "**바룸**"은 "바르게 함" > 바룸은 굽은 것이나 비뚤어진 것을 곧게 펴는 일을 말함 > **다스림**은 어떤 잘못이나 고장을 고치는 일 ⇒ **정치인**은 모든 것

이 바른 자리에 놓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람

⇒ **"바루어 다스림"**이란 의미의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구조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게 아니라, 평등한 의사결정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.

⇒ **오늘날의 정치**는 무력이나 폭력 대신 **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합리적 설득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행위이고, 정치가**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, 따라서 사실을 은폐하지 말아야 하며,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이미지 조작이나 사실 조작 등을 통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.

- 대중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믿고자 하는 심리는 무엇인가?

- **마키아벨리**의 희곡 **『만드라골라』 >** 귀족 청년 **칼리마코,** 늙은 판사 **니키아,** 젊은 아내 **루크레치아:** 만드라골라(Mandragola)에서 추출한 약을 먹이고 루크레치아와 동침하면 **아이**를 얻을 수 있고, 만드라골라의 약을 먹은 여인과 첫 번째로 동침한 남자는 죽게 된다는 거짓말.

정치인들의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거나 믿고 싶어 하는 바를 말해 주기 때문.

3. 민중과 세금

- 민중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.

역사적으로 **민중(民衆)**만큼 사회를 변화시킨 세력은 없었다. 민중은 지배층에게는 착취의 대상이었음에도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. 민중은 **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**에 자칫 사회적 저항의 진앙지가 된다.

- 민중 개념의 역사

> 오늘날 우리는 **"민중(民衆)"**이라는 말을 **동학(東學)에서 말하는** "**백성(百姓)**"과 비슷

> **"민(民)"**이라는 한자는 포로(捕虜)나 노예(奴隷)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사람의 이마에 새겼던 글자 > 나중에 "민"은 "일반 백성"의 뜻을 갖게 되었다.

> **"중(衆)"**이라는 말도 짐승이나 새가 모여 이루어진 "떼거리" 또는 "무리"의 뜻

> "민중"이란 표현은 신분적 예속과 인격적 비하감이 실린 말 > "민중"이란 말뜻에는 울분, 억울함, 고통, 인내로 점철된 모진 삶을 견뎌온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이 담겨 있다.

> 1919년 3.1독립운동 후, **신채호(申采浩, 1880-1936)**는 **『조선혁명선언』**(1923)에서 **민중을 민족해방의 주체로 주장 > 여기서** 민중은 **"사람이 곧 한울님이다(人乃天)"**라는 **동학의 근본 교리**에 바탕을 둔 말 > "보국안민(保國安民)", 즉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'민'을 바라보는 당시 지식인들의 시각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신채호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이 '민'을 해방의 주체로 깨달았고, 역사를 "**아(我)와 비아(非我)의 투쟁**"이라는 명제로 정식화했다.[2]

- 민중 억압의 보기 > 세금 문제

조선의 세금 > "역(役)"과 "세(稅)"

"**역**" > 노동의 의무를 나타냄. 군역(軍役)과 요역(徭役)으로 나뉨. 군역은 16-60세에 이르는 장정(壯丁)에게 지워졌고, 요역은 궁을 짓거나 관아를 수리하거나 길이며 다리며 성곽(城郭)을 고치는 일에 나가야만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. 법전에는 토지 8결당 한 명씩 뽑아 1년에 엿새 동안만 일을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관청(官廳)의 수령(守令)이 원하는 대로 불러다 썼다고 합니다.[3]

"**세**"는 돈이나 현물(現物)을 내야 하는 것 > **세금을 거두는 방식**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세금 업무를 총괄하던 관리는 수령(守令) > 수령은 행정이나 치안은 물론 재판권까지 장악 > 수령은 면리(面里)의 자치권을 인정 > 세금의 총액을 마을별로 매겨 내려 보냈다. > **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일은 면임(面任)의 몫**이었습니다. > 세금은 예산의 총액을 미리 짠 뒤 그것을 고을별로 나누어 정하고, 고을에서는 자신들에게 나눠진 몫을 다시 면리별로 쪼갰으며, 면리에서는 마을마다 낼 세액을 정했다. 이것을 동(洞), 즉 마을 단위로 세금을 물린다 하여 "**동징(洞徵)**"이라 불렀습니다. 세금을 개인별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내게 함으

---

[2] 윤건차, 『현대 한국의 사상흐름. 지식인과 그 사상 1980-90년대』, 당대, 2000. 68 쪽 살핌.

[3] 안길정, 『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』, 사계절, 2000. 225-226 쪽 살핌.

로써 주민들은 세금에 대해 일종의 연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.[4]

세금을 내는 계층 > 양인(良人) : 양반(兩班)과 관리(官吏)는 세금이 면제
양인의 대부분 > 농민(農民)이었고, 상인(商人)과 공장(工匠)도 있었다.

조선의 군제 > 초기에는 **병농일치제** > 후기에 이르러 **모병(募兵)**으로 채워졌고, 지방군은 스스로 경비를 대는 **속오군(束伍軍)** 위주로 재편되었다. 모병의 경비는 양인이 바치는 **군포(軍布)**로 댔는데, 1년에 장정이 내야 하는 군포는 **베2 필**이었다. > **임진왜란 이후** 양반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가 지방군인 속오군에 편제되었는데, 여기에는 양인뿐만 아니라 노비, 아들이 없는 65 세 노인, 능노군(왕실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), 봉수군(봉화대에서 망보기 역을 진 사람), 더부살이 등짐장수, 떠돌이 나그네, 도망한 노비, 걸인, 중풍병자, 죽은 사람(망자, 亡者)까지 포함되었다.[5]

17세기 이후 군포의 혹독(酷毒)함 > **족징(族徵), 인징(隣徵), 황구첨정 ⇒ 차라리 고향을 떠나는 길 / 원래 양반의 자손이라고 우김 ⇒ 난민(亂民)** 급속히 늘어남

환곡(還穀) > 고구려의 진대법(賑貸法), 고려의 의창(義倉)을 계승한 **관곡대여제도**, 수령의 관장 아래 춘궁기(春窮期)에 관곡을 농민에게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10-20%의 곡식 이자를 받고 회수했던 제도 > 임진왜란(1592-1597)과 병자호란(1636) 뒤 인조 15년(1637)에는 **환곡이자가 30%로** 껑충 뛰었다. > 환납하지 못한 백성은 **토지를 팔아서 갚거나 강제노동**을 해야만 했습니다.[6]

> **고부 군수 조병갑**

- 민란의 발생

> **민란(民亂)**은 "**폭동(暴動)**"이라 불림 > "폭동"이라는 말은 "사회의 안녕과 질서"를 어지럽게 하는 "집단적 폭력 행위"

> 그러나 **사람들을 죽음 판에로 몰아넣는 '제도적 악'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을까?**

---

[4] 안길정, 228-229 쪽 살핌.
[5] 안길정, 233-236 쪽 살핌.
[6] 전태영, 『세금이야기』, 생각의 나무, 2005. 358-359 쪽 살핌.

-독일의 보기

> **농부들이 반란**(1470). **한스**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, 그에게 한 처녀가 나타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한다.

"왕자와 사제가 없어져야 한다.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웃에 대해 형제가 되어야 한다. **자기 손으로 일해서 빵을 먹고 그의 이웃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**. 모든 세금, 관세, 통행세, 임대료는 없어져야 한다. 숲과 강과 호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."[7]

> 1524년부터 세금과 관련한 **농부들의 반란**은 계속되었다. **임차료** > 사망세 폐지 > **1526년** 슈파이어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지주들은 농민들의 불만사항 중 가축세, 사망세, 노역, 결혼세 등을 폐지하기로 했고, 결국 농노제도까지 폐지하기에 이름.[8]

> 하지만 **조선의 경우,** 1862년(철종 13년) 환곡 문제로 전국적으로 임술농민항쟁이 일어났음에도 환곡제도가 **1894년** 갑오개혁에 이르러서야 폐지

- 민중에 대한 현대적 인식

> **"민중(民衆)"에 대한 정의:** 지배층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, 즉 입을 옷이 없어 헐벗고, 먹을거리가 없어 굶주려야 하고, 번듯한 살 집조차 없어 '떠돌이 살이'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, 지배층에게는 수탈(收奪)과 착취(搾取), 즉 "빼앗음과 쥐어짬"의 대상에 불과했던 사람들

> 그럼에도 **민중**은 서로 모여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고, 서로의 살림살이를 함께 보살피고,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**'서로-살림'의 원리**를 실천한다.

> **민중**은 **모진 삶을 겪은 뒤에야 '보다 나은 세상'을 만들고자 함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**을 말한다. ⇒ **함석헌**(1901-1989)은 60-70년대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종교적 민중론을, 70년대 초에는 조직신학자 **안병무**와 성서학자 **서남동** 등이 '민중 신학'을 외쳤다. 이들에게

---

[7] 전태영, 195 쪽 재인용.

[8] 전태영, 198-199 쪽 살핌.

서 **"민중"**은 **"억압 당하는 자"**로 분명히 규정되었다.

> 1980년대 "민중"은 **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변모** > 이러한 민중은 식민지 시대 민족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억압 받는 계층으로서 계급연합적 . 통일전선적 성격을 지니는 "사회집합체"를 의미한다.[9] > **80년대의 민중론**은 크게 계급론적 입장에서의 민중론과 소외론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. > **한완상**은 **『민중사회학』**(종로서적, 1984)에서 **"민중"**을 정치적 . 경제적 . 문화적 지배수단에서 소외된 존재라고 정의하고, 민중의 존재양식을 **'즉자적(卽自的) 민중'**과 **'대자적(對自的) 민중'**으로 나누었다.

4. 대중의 문제

- 중민의 출현

> **한상진**은 **"중민(中民)"**을 중산층 가운데 "민중(民衆)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"으로 규정 > **중산층(中産層)**은 직업, 교육, 수입, 주택 등 일정한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구비한 집단을 말하는데, 이 집단은 여러 계급으로써 이루어집니다. 중산층 안에는 기득권의 유지에 집착하는 보수적 집단도 있지만,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젊고 근대적인 집단도 있다. '중민'은 여기서 **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세력, 즉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민중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**만 따로 일컫는 말이다.[10]

- 근대적 대중의 출현과 몰락

> 1987년 6월 항쟁: 군부 독재에 대한 대학생과 민중의 저항이 '넥타이 부대'를 비롯한 **'근대적 대중'**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권에 대한 항쟁으로까지 발전했던 사건

> 6월 항쟁은 **민중과 중민의 연대**가 사회 변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

> **한국 사회의 당면한 정치 문제**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다. 즉 항쟁의 목표가 뚜렷

---

[9] 윤건차, 66 쪽.

[10] 한상진, 「사회변혁운동의 민중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」, 『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. 80년대 한국사회의 분석』, 한국사회학회 편, 나남, 1990. 454 쪽 살핌.

했고, 모든 집단이 그 목표에 동의할 수 있었으며, 연대에 어떠한 균열도 일어나지 않았고, 끝까지 그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.

- 중민의 발전

> **"중민(中民)"**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양산된 산업노동자보다 **젊고 학력 수준이 높지만 스스로를 "민중(民衆)"으로 이해하는 중산층** ⇒ 중민은 경제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띠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 성향 ⇒스스로 **경제적 부를 지향**하지만, 기존의 부와 권력을 독점해 온 **지배층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과 불신**

- 양민의 분화 양상 > 민중 ⇒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계급, 중인 ⇒ 중산층 + 기층민중(천민), 중민 ⇒ 화이트칼라에 속하면서 "기층민중"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

- 대중의 출현

> **"대중(大衆)"** > "사람들의 큰 무리" > **불교에서** 사중(四衆)을 통틀어 이르는 말

> **"매스(mass)"**라는 말의 번역어 > "매스"는 "질량(質量)" 또는 "대량(大量)"의 뜻으로 인격이나 개성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. > "**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들**" > "**무차별적인 집합체**" > 어중이떠중이들의 집합체 > **여기저기 출몰하는 오합지졸 같은 군중(mob)** > "매스"는 우리말에 **"부랑패류(浮浪悖類)"** > "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못된 짓이나 하는 무리" > "**유랑민(流浪民)**"이나 "**난민(亂民)**"

> "매스"가 출현한 때 **18세기 후반 > 귀족층**은 대중 계급에 대해 적대감과 대중의 무지함에 대한 반감을 가졌고,[11] **대중**을 야만인처럼 간주했다. 이렇게 대중이 사회적 지배력을 확보한 사회를 가리켜 **"대중사회"**라 부른다.[12]

---

[11] 이도흠, 「왜, 어떻게 대중문화를 낯설게 읽을 것인가」, 『대중문화 낯설게 읽기』(기호학연대 편, 문학과경계사, 2003), 18 쪽 살핌.

[12] 강준만, 『대중문화의 겉과 속 I』, 인물과사상사, 2005. 19 쪽 살핌.

> 19세기의 귀족과 지식인들에게 대중은? > **저급문화 > '정체성 잃은 집단'** > **"싸구려 가격표를 붙이고 다니는 집단"** > **"시청률"이나 "관객의 수"와 같은 숫자그** "누구도" 아닌 **"소비자(消費者)"로 전락**